위기의 인쇄문화산업 대안은 "대동단결"이다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볼 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과거를 거울 삼고 현재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길만이 최선이라고 믿게 되는 것 같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이야기해 왔을 뿐만 아니라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만큼은 안다. 인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본고는 우리 업계의 미래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하나 더 부연하자면, 이에 대한 의견을 같이하는 경우와 달리 할 수 있는 경우의 대안도 제시되기를 바라는 의미와 목적도 갖는다.

최근 들어 인쇄업계에는 성장 기업이 거의 없다. 겨우 유지하거나, 아니면 부채 비율이 높아지거나 도산 기업이 있을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최근의 불경기와도 관련이 있지만, 그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개발해야 한다. 대안이 마련되면 과감한 추진으로 미래에는 더 큰 수난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우리 업계의 모든 단체는 물론 인쇄, 인쇄관련업계, 학계, 개인에 이르기까지 이 심각한 상황을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정의하면서 필자가 보는 미래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미래의 가장 큰 대안은 법률적 접근이다.

오늘과 같은 문명 사회에서는 인쇄가 없으면 국가도 사회도 개인도 모든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쯤은 이제 세상이 다 알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정계, 언론계, 관계에까지도 그 인식이 어느 정도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의 인쇄 환경은 아직 자생적으로 유지 발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설상 가상으로 지금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에 따른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것 또한 빙산의 일각이다. 산업의 국경이 무너지고 평등 · 공정 등의 논리에 따라 업종의 고유 영역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무수하게 쏟아지는 신종(新種) 인쇄물은 이미 비전문인과 비전문 대기업의 침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인쇄문화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한 법률적 접근은 바로 이 시대와 미래에 있어 가장 큰 대안일 수밖에 없다.

인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수출에 가장 기여하는 것이 '인쇄'라는 것은 정치인도 정부도 국민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구텐베르크는 국민이 다 알아도 '직지'는 거의 모른다. 최근에서야 겨우 조금씩 알려져 가고는 있으나 이렇게 가다가는 세계가 모두 아는 구텐베르크처럼 되려면 100년도 더 걸릴지 모른다. 그러니 '인쇄'는 어떻겠는가. 최근 들어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

하다 보니 각계 각층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인쇄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모두가 새삼스럽게 놀란다. 하나 같이 서둘러 홍보를 하라는 주문이다.

우리나라에는 문화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런데 나라가 그렇게 중요시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그 많은 문화 산업도 인쇄가 없이는 한 가지도 존립과 발전이 안된다는 것도 물론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인쇄문화산업의 환경은 자생적으로 존립 발전하기에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쪽에 속한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와 관계 없이 늘 어려운 환경을 면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인쇄문화산업이 그 어느 문화산업보다도, 그 어느 수출산업보다도 국책 문화산업으로 우선적으로 육성 ·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전 국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사업이 펼쳐져야 한다.

그리하여 하루 속히 뿌리 문화산업인 '인쇄'가 모든 문화 산업의 발전에 더 큰 몫을 담당하고, 명실 공히 '수출의 첨병 산업', '수출의 전위 산업'으로서의 기반이 다져져야 할 것이다.

인쇄와 인쇄 관련업과의 관계 정립이 긴요

인쇄업과 인쇄 관련업은 순치의 관계로서 매우 중요한 관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전혀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다. 오직 비즈니스 차원에서 서로 사고파는 관계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인쇄의 물량이 늘어나면 기계, 자재, 약품 등 모든 인쇄와 관련된 업종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고, 반대로 인쇄 기자재의 종류와 품질이 제고되면 그에 따라서 인쇄 품질과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수출 시장도 넓어진다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논리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인쇄와 인쇄 관련업은 하루 속히 관계 개선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정보교류, 협의, 건의, 더 나아가서는 공동 마케팅까지도 협업 관계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용의 가치나, 팔고 사는 비즈니스 차원을 넘어 동반자적 또는 동일 운명체적 관계를 구축하여 상호 발전에 기여하고, 참여하는 방법을 만들어 내야하는 것이다.

일례를 들어, 수출 상담을 하다 보면 자재 같은 데서 문제가 되어 불가능할 때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국내에서 기술이 없어 생산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시중 재고가 없다는 간단한 이유에서였다면 이는 인쇄나 인쇄 관련업의 공동 손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다. 서로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공동운명체적 입장에서 논의를 한다면 상당한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관계 개선을 통하여 상호 발전과 이익을 개발해 가는 방향으로 절대적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인력대란이 오고 있다.

심각한 인력대란이 오고 있다. 얼마 전부터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조합에서 사업을 전개해 오는 것은 그래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의 인력대란은 그러한 차원에서의 인력대란이 아니라 미래 인쇄산업의 수요 창출과 영역 확보의 차원에서 고급 인력을 포함한 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의 인력난과는 맥을 달리한다.

앞으로의 인쇄업계는 전문 경영인 시대, 무한 경쟁 시대, 국경이 없는 시대, 협동 · 협업화 시대, 통신 인쇄 시대, 다기능 · 다품종 시대를 접하고 있으며, 주 5일 근무제 등 경영 환경의 압박 요인을 다분히 갖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점검해 볼 때 지금까지 걱정하던 기능 인력의 부족 정도가 아닌 더욱 심각한 인력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전문 경영인 시대는 오는데 마땅한 전문 경영인의 부족, 고품질과 무역 장벽이 무너지는 시대가 오는데 따른 외국어 능력을 갖춘 고급 인력의 부족, 지금까지 걱정해 오던 일반 인쇄 기능인력의 부족, 인쇄의 전후 공정의 기능 인력 부족, 신종 인쇄라 지칭할 수 있는 첨단 특수 인쇄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자기술 인력의 부족 등이 동시에 불어 닥친다는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본고는 인력대란이란 용어를 썼으며, 이에 대한 대비는 단체나 개별 기업 모두가 소홀히 대비할 수 없는 심각한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개별기업으로서는 나름대로의 대비가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이에 해당하는 인쇄 단체나 관련 기관에서는 앞으로의 사태에 대비하여 각종 방식의 의견을 수합하고 사업 계획, 예산의 반영 등 준비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품질인증제는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제품이나 기업에 대해 품질인증을 해 줌으로써 경쟁력과 공신력을 제고해주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우려의 대상이 아니며, 모든 산업이 이와 같이 품질인증 시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쇄도 그렇게 가야 하는 시대적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품질인증 도입으로 수출과 경쟁력 제고

인쇄문화산업진흥법안에 '품질인증' 이란 조항이 들어가면서 관심과 의문을 갖는 인쇄인도 꽤 있는 것 같다. 당연한 관심과 의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운영의 묘를 살려 인쇄문화산업 전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일 뿐이다. 품질인증의 근본적인 목적은 인쇄의 전반적인 품질을 제고하고, 수출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신뢰감을 높이는 동시에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품질 인증이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겠지만,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인증되는 것이 아니며, 인쇄물의 종류별, 인쇄의 공정별로 인증해 나아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가 유리하다든가 하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어느 정도의 수준과 정성이 들어간 인쇄물(편집, 디자인, 조판, 인쇄, 제책, 코팅 등)은 인증해 주는 쪽으로 인쇄문화산업을 뒷받침해 주는 방향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열악한 소규모의 기업도 소조합, 컨소시엄 등으로 품질 인증을 공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정상적 방법으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제품이나 기업에 대하여는 품질인증을 해 줌으로써 경쟁력과 공신력을 제고해주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우려의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며, 앞으로는 모든 산업이 이와 같이 품질인증 시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쇄도 그렇게 가야 하는 시대적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인쇄물 창출 · 수출 위한 고급 인적 시스템 긴요

지금은 DB인쇄, 전자회로인쇄, 광택, 톰슨인쇄 등의 인쇄물로 인쇄의 영역이 넓어지는 반면 이러한 인쇄물들의 주인은 인쇄만이 아닌 전자 기술 등의 영역으로 분산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인쇄 수출의 경쟁력은 갖고 있으나 고급 인쇄기술과 언어를 공유하는 고급 인력의 부족으로 인쇄 수출이 부진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전자 기술'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는)과 '고급 외국어 능력' 을 가진 인쇄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국어를 쓰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단체나 국가의 뒷받침으로 인쇄 외교나 인쇄를 연구하는 기관의 요인들은 2~3개 정도의 외국어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한편, 그 후임을 대비한 인력까지 외국어 공부를 시키고 있으며, 신종 인쇄, 미래인쇄를 대비하면서 전자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인쇄는 이미 물과 공기를 제외한 모든 물체에 인쇄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다 새로운 것을, 보다 빠르게, 보다 쉽게, 보다 효과적이라는 목표로 연구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역시 인쇄의 영역은 계속적으로 침식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환경으로 보아 이러한 두 가지 방향의 고급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모든 인쇄인들이 관심을 갖고 이러한 현실과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할 것이다.

다행하게 자체 모금이라든가 그 어떤 방법이 아니면 법적 지원이나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는 지체없이 이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일단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구조조정 차원의 업무 조정

우리 업계의 모든 단체는 하나 같이 우리 인쇄인들이 주인이며, 궁극적으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단체이다. 그러나 우리 업계에는 중복 업무 등 시정과제가 꽤 많아 보인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발간물, 홍보물, 교육, 연구, 행사, 전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발간물이나 홍보물, 명부 등 모든 출판 인쇄물은 어느 한 단체에서 전문성있게 펴내면 인력 · 비용 등에서 많이 절약될 것이며, 질적 향상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은 홍보와 교육이다. 이것도 역시 비슷하다. 각 단체마다 사업계획 속에 감초같이 끼어 있는 홍보와 교육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집행되는지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홍보 부서나 교육 부서가 전혀 전문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 단체마다 홍보와 교육의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각각으로 이루어진다면 비효율과 낭비이다.

이 문제 역시 과감하게 업무를 어느 한 단체에 맡겨 보다 전문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중복된 예산을 단일화함으로써 비용도 절약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는 모두가 전문성을 요구하고, 적당히 갈 수 없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내가 해야 하고, 우리 것이고, 생색내기 같은 일들은 이제 과감히 제거되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협의 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 업무, 예산의 교통 정리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다.

단체장의 연임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업계가 발전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원인은 단체장의 무제한적 중임 제도에 있다. 따라서 중임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인쇄 단체장의 중임제도를 고쳐야 한다. 같은 자리에서의 사람의 능력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에 의해 다선을 하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

그리고, 무제한적 다선 제도는 파벌과 아성이 형성되기 쉽고, 안일과 무능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독선과 불합리한 조직으로 발전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논리에서 독재가 아닌 이상 어느 나라나 대통령의 중임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더욱 빠르게 발전해가는 시대에 있어서는 그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도 더욱 그러한 논리가 적용되어야하므로 무제한적 다선 제도는 하루 빨리 제한을 두어야 한다.

선거제도 반드시 개혁해야

늘 선거 때만 되면 불편과 부작용, 파벌 등 여러 가지가 업계를 걱정하게 만든다. 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이러한 부작용은 어느 정도 계속 이어진다.

아마도 우리 인쇄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선거가 아니라 훌륭한 일꾼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에서든지 우리 업계를 대표할 수 있고, 우리 업계를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것이지, 선거 자체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가까운 일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회원이나 조합원의 손으로 단체장을 뽑지 않는다. 그래서 파벌, 반목, 중상 모략 등의 부작용이 없고, 추대에 의해 선임된 단체장은 명실공히 단체를 대표하며, 업계의 장래 발전에만 전념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업계의 분위기는 결국 단체와 단체장을 신뢰하게 되고, 단체와 단체장은 폭넓게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단일화된 업계의 미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이라고 하여 원칙론적으로는 모두가 찬성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 즉, 단체장을 해야겠다는 본인의 욕구가 있는 사람이거나 선거에 출마한 사람만이 단체장이 될 수 있는 제도이지 인격이나 능력과는 별개라는 점이다.

우리도 앞으로는 선거를 그만해야 된다. 어떠한 기구가 되던지 아니면 여론을 수렴하던지 해서라도 우리 업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사심 없이 능력 있고 존경 받을 수 있는 인물을 추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이다.

홍우동 · 대한인쇄문화협회장